

레미콘 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1. 1999년도의 건설경기동향

1) 개황

한국은행의 '99년도 국내총생산 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민간소비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힘입어 GDP가 10.7%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공업용이 하반기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주거용 및 상업용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지난해 802,950억원에 비해 10.3% 감소한 719,88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민간건축 등에 대한 건설수요 위축과 상반기의 주택미분양의 지속으로 인한 신수요 감소로 주거용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19.1%감소(4/4분기

△16.3%)하였다. 또한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는 하반기 들어 공업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업용은 여전히 부진하여 지난해 대비 38.1%감소(4/4분기 △26.8%)하였다.

그러나 토목투자에 있어 월드컵 경기시설 등의 도시토목, 상하수도, 철도시설건설 등이 늘어나 8.3%증가(4/4분기 △3.3%)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허가 동향

'99년 건축허가면적은 1/4분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부진이 두드러졌으나 4월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민간건축경기가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상업용과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을 중

〔표 1〕 1999년 국내총생산·지출현황

(단위:10억원, '95년 기준,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국내총생산(GDP)		최종소비지출		건 설		설 비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98	394,710	△6.7%	202,406	△11.4	80,295	△10.1	34,268	△38.8
99	436,798	10.7%	223,496	10.3	71,988	△10.3	47,286	38.0
98. 4/4	108,963	△5.9%	52,222	△8.9	22,774	△13.9	8,508	△38.8
99. 1/4	96,534	5.4%	53,211	6.7	14,355	△11.2	10,233	13.0
2/4	107,179	10.8%	54,711	10.3	18,873	△8.5	11,700	37.3
3/4	109,938	12.8%	57,045	12.1	18,304	△9.8	12,154	48.5
4/4	123,147	13.0%	58,527	12.1	20,456	△10.2	13,199	55.1

[표 2] 용도별 건설투자 현황
(단위: %, 전년동기대비)

구 분	건설투자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99년도	△10.3	△19.1	△38.1	8.3
99. 1/4	△11.2	△20.2	△41.5	25.1
2/4	△8.5	△18.5	△47.5	17.9
3/4	△9.8	△21.1	△32.9	6.8
4/4	△10.2	△16.3	△26.8	△3.3

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7월 이후에는 주거용, 상업용 및 공업용의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98년 50,965천㎡ 대비 42.3% 증가한 72,532㎡이 허가되는 등 민간 건축경기의 회복기조가 뚜렷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이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44,605천㎡로 지난해 31,154천㎡보다 43.2% 증가하였으며 상업용도 11,744천㎡로 전년 8,754천㎡보다 34.2% 증가하였다. 또한 공업용 건축허가면적도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제조업의 공장신축이 증가하면서 전년 2,797천㎡보다 179.8% 증가한 7,824천㎡가 허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축허가면적

의 증가도 사실상 '97년도 건축허가면적(113,371천㎡)의 6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예상외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999년도 건설계약 실적

대한건설협회의 '1999년도 국내건설실적'에 의하면 '99년 12월까지 국내건설공사 누계액은 511,364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는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17.2% 감소한 244,44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토목은 국영기업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발주가 극히 부진하여 전년대비 23.3% 감소한 171,849억원에 그쳤으나 건축은 월드컵관련시설 및 관공서, 병원 등의 발주호조로 전년 70,933억원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부문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45.2% 증가한 266,924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토목은 2/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26,205억원 대비 37.8% 증가한 36,12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민간건축도 주거용이 대형업체 중심

[표 3] 1999년도 건축허가면적 현황

(단위: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 적 합 계		주 거 용		상 업 용		공 업 용		문 교 · 기 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98.12	5,481	△61.6%	3,731	△61.2	651	△74.0	272	△50.8	827	△48.1
99.11	8,684	120.8%	5,713	119.2	1,136	167.2	998	316.4	837	26.3
12	14,927	172.3%	11,231	201.0	1,848	183.8	855	214.9	993	20.1
1/4	9,538	△45.8%	5,098	△55.0	1,915	△39.8	933	24.2	1,592	△32.4
2/4	15,819	22.4%	8,844	16.0	2,823	7.4	1,867	17.7	2,285	14.3
3/4	15,825	76.6%	8,741	82.7	2,881	90.9	2,250	242.5	1,953	△3.0
4/4	31,349	173.5%	21,922	195.3	4,125	187.9	2,774	287.8	2,528	33.5

자료: 건설교통부

[표 4] 1999년도 건설계약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999년도	1998년도	증감율	
총계약액	511,364	478,918	6.8	
공공	합계	244,440	295,120	-17.2
	토목	171,849	224,187	-23.3
	건축	72,592	70,933	2.3
민간	합계	266,924	183,798	45.2
	토목	36,121	26,205	37.8
	건축	230,803	157,593	46.5

자료 : 대한건설협회

으로 경기 및 수도권지역의 신규공사와 서울·경인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상승세를 나타내 전년대비 61.3% 증가한 176,08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용도 경기회복에 빠른 반응을 보인 공장, 창고 부문이 호조를 나타내 전년대비 13.0% 증가

한 54,71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4) 건설경기의 향후 전망

건설교통부의 '1999년도 건설투자동향'에 따르면 '99년 하반기 이후 경기성장율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98년의 감소세(△6.7%)에서 증가세(10.7%)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오히려 감소폭이 소폭 늘어나 '98년(△10.1%)에 비해 더욱 감소한 △10.3%를 기록하여 여전히 건설경기의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올해의 건설경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건축 회복세와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 주택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대로 민간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리라 보여지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5%, 건설수주는 12%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5] 1999년도 레미콘 생산업체 총괄표

(1999. 12. 31일 기준)

구분 지역	업체수	공장수	배치플랜트			레미콘 믹서트럭	시멘트 사이로	가동율 (%)
			기수 No.	레미콘생산능력				
				m ³ /hr	千m ³ /年			
서울·경인	99	151	259	49,080	98,160	7,087	165,380	38.7
강원	70	78	84	11,580	23,160	1,013	38,380	21.4
충북	42	43	52	7,860	15,720	830	23,470	25.3
대전·충남	68	91	120	18,678	37,356	1,990	78,520	24.3
전북	50	54	70	11,820	23,640	1,169	41,330	20.5
광주·전남	64	77	98	15,870	31,740	1,921	54,710	26.5
경북	71	80	104	15,790	31,580	1,525	71,330	27.2
대구	17	19	29	5,030	10,060	573	24,400	28.9
경남	65	67	91	14,820	29,640	1,885	56,550	29.9
부산	14	15	24	4,310	8,620	630	35,410	35.8
울산	17	18	26	3,990	7,980	392	14,310	23.4
제주	15	15	19	3,030	6,060	303	10,839	23.2
전국총계	545	708	976	161,858	323,716	19,318	614,629	29.6

주 : 1. 전국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임.

2. 1999년도 레미콘산업 동향

1) 개황

지난해 레미콘산업은 545개업체 708개공장에서 95,974,214m³를 출하하여 전년 96,083,697m³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소폭이 비록 '98년 △27.9%보다 크게 둔화된 것이기는 하나 '98년에 이어 2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98년도에 IMF 위기가 직접적으로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불러오면서 레미콘 출하가 급감하였음은 물론 여타 다른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데 반해 '99년도에는 여타 다른산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97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고 건설경기도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레미콘산업은 오히려 '98년도 보다 후퇴하였다. 이는 '98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공사가 크게 줄어들었고 상반기중 신규 착공공사의 격감으로 인한 레미콘 출하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매년 증가하였던 생산업체 및 공장수도 IMF이후 출하감소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레미콘 가격하락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 공장을 폐쇄하거나 연쇄부도로 기존업체수가 감소하였고 신규업체들의 참여도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방식보다 기존 공장의 인수 및 합병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1998년도 560개 업체 728개 공장에서 1999년도 545개 업체 708개 공장으로서 줄어들었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건설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

라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 1999년도 레미콘 출하동향

1999년도는 '98년 경제위기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돼 신규로 착공되는 공사가 급감하면서 올해초 이월된 공사가 크게 줄어 1/4분기중 레미콘출하는 전년 대비 약 20%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작되었다. 2/4분기에는 전년 28,069,504m³대비 5.5% 증가한 29,627,329m³를 출하하면서 '98년 이후 보인 급격한 감소추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보였으나 전년 이월공사 및 신규 공사물량의 소진과 추석연휴로 인한 가동일수의 부족으로 3/4분기중에 전년동기 23,699,508m³대비 4.3% 감소한 22,672,332m³를 출하하는데 그쳤다. 한편 4월 이후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IMF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4/4분기 중 전년동기 26,004,923m³대비 9.7% 증가한 28,532,262m³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관수 수요별 레미콘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98년도에는 민수 레미콘의 급격한 감소에 비해 관수 레미콘은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민·관수 출하의 양극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던데 반해 '99년도에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부문의 조기발주에 의한 효과가 레미콘산업에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았고 지자체 및 공공단체의 재정상의 문제로 신규투자가 여의치 못하여 관수 출하의 위

(표 6) 1999년도 분기별 출하실적

(단위 : m³, %)

구분	1/4분기	2/4분기	상반기	3/4분기	4/4분기	하반기	년 계
'98년	18,309,762	28,069,504	46,379,266	23,699,508	26,004,923	49,704,431	96,083,697
'99년	15,142,291 (-17.2)	29,627,329 (5.5)	44,769,620 (-3.4)	22,672,332 (-4.3)	28,532,262 (9.7)	51,204,594 (3.0)	95,974,214 (-0.1)

(표 7) 지역별 수요별 레미콘 출하 현황

(단위 : m³, %)

지 역	수요별	'99년	'98년	증감률	점유율
서울·경인	민 수	32,192,294	32,539,068	-1.07	39.56
	관 수	5,772,440	6,620,675	-12.81	
	계	37,964,734	39,159,743	-3.05	
강 원	민 수	3,191,318	3,296,376	-3.19	5.17
	관 수	1,769,011	1,673,053	5.74	
	계	4,960,329	4,969,429	-0.18	
충 북	민 수	2,873,868	2,870,835	0.11	4.14
	관 수	1,098,752	1,120,403	-1.93	
	계	3,972,620	3,991,238	-0.47	
대전·충남	민 수	6,527,756	7,001,848	-6.77	9.47
	관 수	2,562,793	2,369,089	8.18	
	계	9,090,549	9,370,937	-2.99	
전 북	민 수	3,388,850	3,530,816	-4.02	5.06
	관 수	1,468,011	1,770,079	-17.07	
	계	4,856,861	5,300,895	-8.38	
광주·전남	민 수	5,755,127	5,800,306	-0.78	8.75
	관 수	2,640,405	2,749,653	-3.97	
	계	8,395,532	8,549,959	-1.81	
경 북	민 수	5,185,423	4,595,586	12.83	3.03
	관 수	3,413,591	2,938,720	16.16	
	계	8,599,014	7,534,306	14.13	
대 구	민 수	2,540,626	2,341,261	8.52	8.96
	관 수	369,666	388,406	-4.82	
	계	2,910,292	2,729,667	6.62	
경 남	민 수	6,042,908	5,450,281	10.87	1.95
	관 수	2,817,520	2,977,985	-5.39	
	계	8,860,428	8,428,266	5.13	
부 산	민 수	2,521,882	2,303,729	9.47	9.23
	관 수	563,330	585,884	-3.85	
	계	3,085,212	2,889,613	6.77	
울 산	민 수	1,495,539	1,421,684	5.19	3.21
	관 수	375,163	323,977	15.80	
	계	1,870,702	1,745,661	7.16	
제 주	민 수	876,343	731,822	19.75	1.47
	관 수	531,598	682,161	-22.07	
	계	1,407,941	1,413,983	-0.43	
합 계	민 수	72,591,934	71,883,612	0.99	100.00
	관 수	23,382,280	24,200,085	-3.38	
	계	95,974,214	96,083,697	-0.11	

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 전년 24,200,085m³ 대비 3.38% 감소한 23,382,280m³를 출하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민수레미콘은 전년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민간건설이 '99년에 다소 회복되었고 전년 민수레미콘출하의 급감에 따른 상대적인 영향으로 전년 71,883,612m³ 대비 0.99% 증가한 72,591,934m³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레미콘 출하는 경북지역이 수해복구 공사 등 관수출하가 호조를 보여 전년 7,534,306m³ 대비 14.13% 증가한 8,599,014m³를 출하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북지역은 관수출하의 저조로 전년 5,300,895m³ 대비 8.38% 감소한 4,856,861m³를 출하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되 지역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경인지역이 전년 39,159,743m³ 대비 3.05% 감소한 37,964,734m³를 출하하였고 대전·충남 지역도 9,090,549m³를

출하하여 전년보다 2.99%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비 5.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경남지역은 8,860,428m³를 출하하여 전년

[표 8] 년도별 민·관수 출하 현황

(단위 : m³ %)

년 도	수요별	민 수		관 수		총 계	
1994년		85,829,051	(80.5)	20,762,884	(19.5)	106,591,935	(100)
1995년		94,991,463	(82.8)	19,739,634	(17.2)	114,731,097	(100)
1996년		105,181,550	(83.6)	20,624,215	(16.5)	125,805,765	(100)
1997년		109,244,888	(82.0)	23,951,888	(18.0)	133,196,735	(100)
1998년		71,883,612	(74.8)	24,200,085	(25.2)	96,083,697	(100)
1999년		72,591,934	(75.6)	23,382,230	(24.2)	95,974,214	(100)

